

## Worldwide Brewing Alliance 의 결과

세계 각국 맥주협회의 모임인 WBA(Worldwide Brewing Alliance) 정기회의가 2009년 10월 27~28일 2일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의 모나코호텔에서 개최되었다.

WBA는 세계 맥주협회간의 정보교류와 상호협조의 필요성을 느낀 미국맥주협회(Beer Institute), 유럽맥주협회(Brewers of Europe), 영국맥주&펍협회(British Beer & Pub Association)의 주도로 2003년에 구성되었다. 이후 캐나다맥주협회(Brewers Association of Canada), 일본맥주주조조합(Brewers Association of Japan) 등 각국의 맥주협회가 참여하였고 현재는 총 10개의 맥주관련 협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10개 협회에 가입된 맥주회사에서 생산된 맥주의 양은 세계 총 맥주생산량의 88%에 이르르고 있으며, 이에 WBA는 세계맥주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008년 말 아시아지역에서 일본, 중국에 이어 세번째로 WBA에 가입하였다.

## WBA 회원가입 국가현황

|                                                                                  |                                                                                                            |                                                              |                                                                                                                           |
|----------------------------------------------------------------------------------|------------------------------------------------------------------------------------------------------------|--------------------------------------------------------------|---------------------------------------------------------------------------------------------------------------------------|
| <b>한국주류산업협회</b><br>(Korea Alcohol & Liquor Industry Association)                 |                           | <b>캐나다맥주협회</b><br>(Brewers Association of Canada)            | <br>Brewers Association of Canada       |
| <b>미국맥주협회</b><br>(Beer Institute)                                                | <br>BEER INSTITUTE        | <b>러시아맥주협회</b><br>(The Union of Russian Brewers)             | <br>The Union of Russian Brewers        |
| <b>영국맥주&amp;펍협회</b><br>(British Beer & Pub Association)                          |                           | <b>라틴아메리카맥주협회</b><br>(Cerveceros Latinoamericanos)           | <br>CERVECEROS LATINOAMERICANOS          |
| <b>유럽맥주협회</b><br>(The Brewers of Europe)                                         | <br>The Brewers of Europe | <b>일본맥주주조조합</b><br>(Brewers Association of Japan)            | <br>Brewers Association of Japan         |
| <b>호주&amp;뉴질랜드맥주협회</b><br>(Brewers Association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Inc) | <br>BREWERS ASSOCIATION  | <b>중국양주공업협회 맥주분과</b><br>(China Brewing Industry Association) | <br>China Brewing Industry Association |

WBA는 매년 1회(10월 말) 회원협회들이 모이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컨퍼런스콜 또는 메일교환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정기회의는 유럽맥주협회 주최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었으며, 올해는 미국맥주협회의 주최로 미국 버지니아에서 열리게 되었다.

WBA는 그동안 사무실 및 전담직원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미국맥주협회와 영국맥주&펍협회, 유럽맥주협회, 캐나다맥주협회 임직원들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다. 특히 영국맥주&펍협회에서 컨퍼런스콜 개최 및 홍보서적 발행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영국맥주&펍협회의 회장인 David Long박사는 지난 6년간 WBA회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WBA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WBA의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초에 퇴직한 前영국맥주&펍협회의 Janet Witheridge씨를 비상근 직원으로 2년간 고용키로 합의하는 한편 WBA의 회장인 David Long박사가 정년퇴임을 함에 따라 미국맥주협회의 회장인 Jeff Becker씨가 신임 WBA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WBA정기회의에서는 'WHO글로벌알코올정책 진행 동향',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맥주업계의 노력', '마케팅자율규제', '맥주상표라벨링', '맥주업계의 사회책임활동(CSR)', '주류산업의 경제기여' 등에

1) 유럽맥주협회 : 프랑스맥주협회, 독일맥주협회 등 26개 유럽국가별 맥주협회들의 연합

대한 각국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중 WHO에서 추진중인 '글로벌알코올정책' 진행동향과 이에 대한 맥주업계의 향후 추진방안이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 WHO글로벌알코올정책

WHO는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차원의 음주피해 감소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8년 5월 정기총회의 결정에 따라 각국 정부에 효과적인 알코올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로벌알코올정책(Global strategies to reduce harmful use of alcohol)' 결의서 초안을 작성중에 있다. 이 결의안은 내년 1월 WHO집행이사회의를 거쳐 5월 WHO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에 있으며 채택이 유력시 되고 있다.

WHO는 이 결의안 작성을 위해 UN산하기구, 193개 회원국 정부, WHO지역사무소와 여러 차례 컨설팅을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류업계를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컨설팅을 개최 그리고 인터넷 설문 등을 통한 일반인들의 의견 조사 역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WHO는 2009년 9월 '글로벌알코올정책 초안(Working document for developing a draft global alcohol strategy to reduce harmful use of alcohol)' 을 일반에 공개하였는데, 이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정책 추진을 회원국 정부에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 결의안 초안에는 각국 정부에게 국가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명기하고 있기는 하나, WHO에서 결의안을 통해 10가지 권장 정책을 설정하는 것은 자칫 위와 같은 모든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주류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고유의 음주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별로 적합하고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 있기 마련인데, WHO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실정이 고려되지 않고 국가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규제정책 추진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WBA는 WHO의 글로벌알코올정책 채택과 각국 정부의 알코올규제 실시에 앞서 세계 맥주제조업체들이 자율적인 음주피해감소 방안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법률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규제정책은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주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율규제와 음주피해감소 활동은 소비자와 국가 음주실정을 잘 반영한 가장 적합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WHO권장 음주피해감소 정책(안)

- 1) **음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 (Awareness and commitment)** : 음주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해야 함을 강조(예 : 음주에 대한 정보전달 캠페인, 광고 등 실시)
- 2) **보건서비스 지원 (Health services' response)** : 음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 관리(예 : 치료·재활서비스 실시, 사회복지전문가 양성)
- 3) **사회차원의 대처 (Community action)** : 음주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직장 등 사회집단의 역할 강조(예 : 특수 금지지역 선포, 직장내 알코올프로그램 운영)
- 4) **음주운전 대책 (Drink·driving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 음주운전으로 인해 야기되는 피해 감소를 위한 정책 실시(예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 불시음주운전단속 강화)
- 5) **알코올구입 통제 (Availability of alcohol)** : 주류에 대한 판매를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음주량을 감소시킴
- 6) **알코올마케팅 제한 (Marketing of alcoholic beverages)** : 주류마케팅 통제를 통해 음주량을 감소시킴
- 7) **가격정책 (Pricing policies)** : 주류가격인상으로 음주량 감소시킴
- 8) **음주피해 사전방지 (Harm-reduction approaches)** : 건전한 음주환경조성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문제들을 사전대처(예 : 건전한 주점 분위기 조성, 만취자 주류제공 금지, 플라스틱 잔 교체)
- 9) **불법주류 근절 (Reducing the public health impact of illegal or informal alcohol)** : 음주 피해 확산을 부르는 불법주류의 근절(예 : 불법주류위험성 홍보, 불법주류 추적시스템 강화)
- 10) **감시 및 감독[정보수집 및 제공] (Monitoring and surveillance)** : 음주 피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 배포를 통해 정책자료로 활용(예 : 정보수집·분석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담당 기관 임명 또는 신설)

## 마케팅 자율규제

주류 마케팅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음주에 대한 노출을 줄여 음주피해를 막는 정책으로 결과적으로는 주류소비량과 판매량 감소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음주를 통해 심신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건전음주자들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등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마케팅을 허용하되 과음 및 청소년음주 등 음주피해를 조장할 수 있는 마케팅은 지양토록 하는 것이다.

한편 주류업체들은 스스로 마케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음주피해를 조장할 수 있는 광고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맥주제조업체들을 필두로 이미 대다수의 맥주제조업체들이 마케팅에 대한 자율지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자율규제의 예로 미국맥주협회가 있다. 미국맥주협회는 마케팅자율규제기준을 정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데서 끝나지 않고 CCRB(Code Compliance Review Board : 자율규제 감시 위원회)를 두어, 미국내에서 실시중인 맥주마케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접수·분석하여 부정적인 광고에 대해서는 주류업계에서 시정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절차는 정부의 규제없이 맥주업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맥주상표라벨링

현재 많은 수의 국가에서 법적 또는 자율적으로 맥주제품용기에 건전한 음주를 권장하고 과음, 임신부음주, 청소년음주 등의 경고하는 경고문구가 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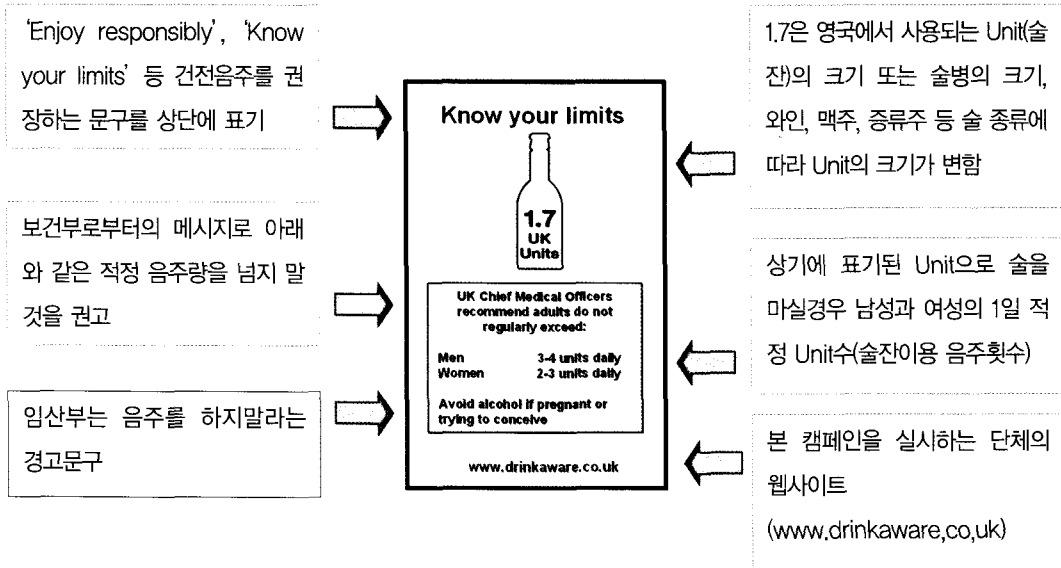
이중 영국의 주류업체(맥주업체 포함)들은 자사 제품의 적정 음주량(1일 기준 적정 잔수)을 자발적으로 라벨에 표기하고 있다. 다음은 영국 주류라벨에 표기되는 건전음주표기의 예이다.

물론 이와 같은 적정음주량 표기제는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현재 영국 맥주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맥주제품의 80%가량이 적정음주량 표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맥주업계의 노력

세계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류산업 역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물사용량 감소, 용기재활용 등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세계 맥주업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예로 캐나다맥주협회와 맥주사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중인데, 조사에 캐나다맥주협회 자료에 따르면 1989년에서 2008년까지 20년동안 캐나다 맥주제조업체들은 맥주제조시 발생하는 온실가



스 배출량을 43% 감소시켰다. 또한 캐나다는 물부족 국가가 아님에도 수자원을 아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캐나다 맥주제조업체들 역시 폐수 재활용, 직원교육을 통한 물낭비 방지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중이다.

다음은 영국으로 영국맥주&펍협회(BBPA)는 최근 지난 30년간 영국 맥주업체들의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담은 책자(The British brewing industry : Thirty years of environmental improvement)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를 보면 영국맥주업체들은 지난 30년간 물사용 효율 증대를 통해 연간 물사용량을 43% 감소시킨 것으로 나와 있다. 책자는 영국맥주&펍협회 홈페이지(<http://www.beerandpub.com>)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미국맥주협회와 맥주제조사들은 알루미늄 용기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용기재활용을 통해 지난 30년간 알루미늄 용기 사용량을 40% 감소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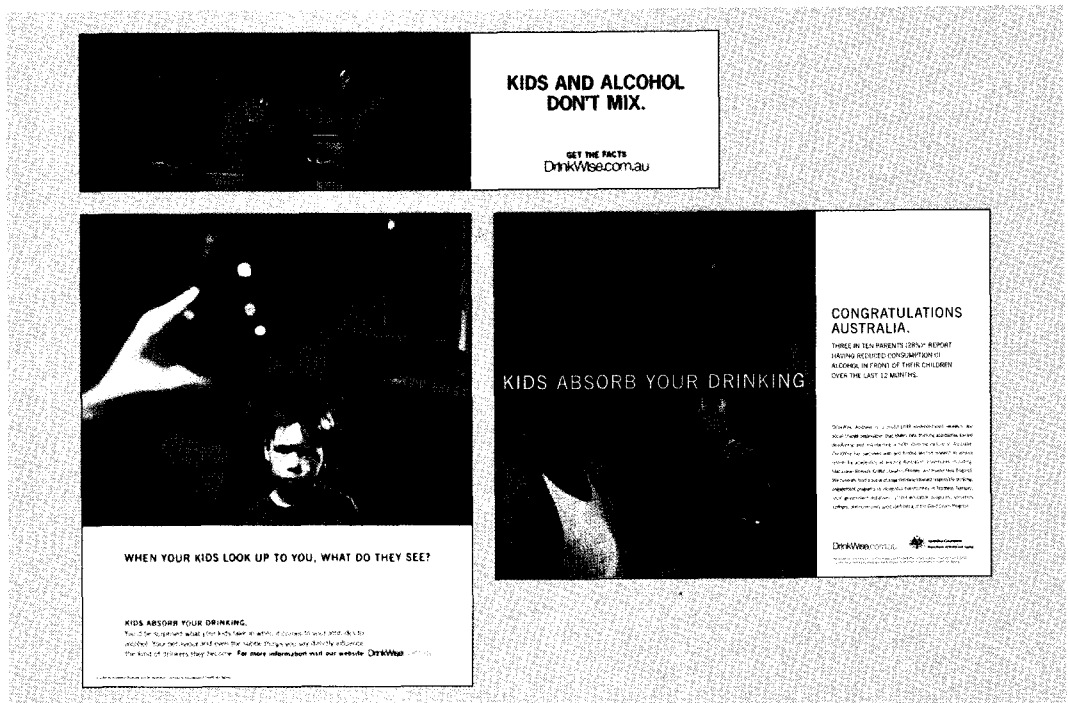
WBA는 전 세계맥주제조업체들의 환경문제 감소를 위한 노력 및 실적을 담은 책자를 발행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각국 자료를 수집중이다.

## 주류업계의 사회책임활동

주류업계는 주류소비자를 단순한 판매의 대상이 아닌 주류업계를 지탱하고 있는 근본으로 대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자발적인 음주피해감소 사회책임활동(CSR)을 실시해야 하며, 현재 많은 수의 주류업체에서 CSR을 실시중에 있다.

그 예로 호주주류업체는 건전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Drinkwise' 라는 단체를 후원하고 있다. Drinkwise 는 특히 미성년자음주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성년자가 음주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TV공익광고 방송 및 각종 홍보자료 배포를 실시중에 있다.

### - 호주 Drinkwise의 미성년자음주방지 홍보자료 예 -



주류업체의 사회책임활동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호와 동시에 주류업계 긍정적 이미지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이에게 이로운 활동임을 주류업계 종사자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책임활동은 주류업체 뿐만 아니라, NGO, 보건계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상호협력 할 경우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

## 식품위생 및 안정성

식품위생문제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법적인 규제가 생기기전에 제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안정성을 검사하고 규제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

그러나 식품 안정성 문제는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주류업체는 사전예방 및 문제발생대처를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국맥주&펍협회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알루미늄', 'BPA(비스페놀A)', 'Mycotoxins(곰팡이독소)', 'PAH(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외부용역을 통해 실시중에 있다. 이와 같은 사전 예방 노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때 주류업계를 이롭게 하는 활동임이 분명하다. WBA는 세계 맥주제조업체들이 이와 같은 식품위생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예방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주류산업의 경제기여

주류산업은 단순한 주류제조업 뿐만 아니라, 도·소매, 유통, 광고, 농업 등 다양한 산업이 이루어진 종합산업이며, 이들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는 매우 크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음주폐해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홍보를 하다보니 일반인들은 주류업계의 엄청난 국가 경제기여도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주류업체는 국가경제기여도 및 주류산업으로 인한 각종 혜택과 공헌에 대한 자료를 체계화하여 정부와 소비자에 주류산업의 공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WBA는 각 국가별 맥주산업의 경제기여도를 수치화하여 '세계맥주산업의 경제기여도' 책자를 발간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정보를 수집중에 있다.

이상은 2009년도 WBA정기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었으며, 2010년 WBA정기회의는 유럽맥주협회의 주최로 2010년 10월 20~21일 이틀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릴 예정이다.